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 1959~2002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the Master's & Doctor's Dissertations
in the Field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1959~2002

손 정 표(Jung-Pyo Sohn)*

〈 목 차 〉

- | | |
|--------------|--------------|
| I. 서론 | II. 연구동향분석 |
| 1. 연구목적 | 1. 연도별 분석 |
| 2. 연구방법 및 한계 | 2. 영역별 분석 |
| 3. 선행연구 개관 | III. 요약 및 결론 |

초 록

이 연구는 1959~2002년간의 문헌정보학분야 석·박사학위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1959~2002년간의 연평균 발표량을 38.5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2002년이 가장 많고, 영역별 연평균 발표량은 순위는 도서관경영, 정보학, 공공봉사, 자료조직, 서지학, 장서개발(관리), 도서 및 도서관사, 문헌정보학기초 순으로, 각 영역의 주제별로는 문헌정보학교육, 도서관경영론 전반, 분류법, 장서개발(관리) 일반, 참고·정보봉사, 분석서지학, 도서관사, 정보검색분야가 각 영역의 타 주제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연구동향, 문헌정보학, 석·박사학위논문

Abstract

This study is to represent the research trend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the master's and doctor's dissertations published from 1959 through 2002.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average yearly dissertations: 38.5 pieces; the year published the largest number of dissertations: 2002; the order of the number of dissertations by the domain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library management, information science, public service, organizing library materials, bibliography, collection development(management), history of books & libraries, foundation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Key Words: Research trend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MA & Ph.D dissertations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jpsohn@knu.ac.kr)

• 접수일 : 2003. 11. 12 • 최초심사일 : 2003. 12. 1 • 최종심사일 : 2003. 12. 3

I. 서 론

1. 연구목적

1957년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과(현 문헌정보학과)가 설립되면서 현대적 의미의 문헌정보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오늘에 이르는 46년 동안 국내의 문헌정보학계는 사회구조 및 정보환경의 변화와 함께 많은 학문적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와 같은 변화와 발전에 견인차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1970년대 말경부터 1980년대에 걸쳐 많은 대학들이 문헌정보학과를 설치함에 따라 2003년 8월 현재 4년제 32개교, 전문대 8개교, 계 40개교라는 급속한 양적 팽창과 더불어 1957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도서관학과(현 문헌정보학과)와 1971년 동 대학교의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에 사서교육 전공이,¹⁾ 그리고 1974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도서관학과(현 문헌정보학과)가 설립된²⁾ 이래 2003년 8월 현재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개설 23개교, 박사과정 개설 10개교,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개설 16개교에서 배출되고 있는 연구인력이라고 하겠다.³⁾ 이 가운데서 특히 학위과정의 경우를 보면 1990년 이후에 설치된 대학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12개교, 박사과정이 6개교,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이 11개교로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고⁴⁾, 이 시기동안 발표된 학위논문도 후술한 바와 같이 1959~2002년의 44년간 발표된 총 1,695편 중 69.9%인 1,185편(박사학위논문 총 169편 중 149편(88.2%), 석사학위논문 총 1,526편 중 1,036편(67.9%)임)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동기간에 발표된 학술논문의 경우도 1967~2002년간 학술지에 발표된 총 2,271편의 논문 중 81.2%(1,844편)⁵⁾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기간 동안 배출된 연구인력들이 연 활동의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연구활동이 1990년대에 들어 활발해짐에 따라 연구자들도 그동안 문헌정보학이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개개인의 관심분야와 학문적 유행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 그 추이

1) <http://lis94.new21.net/> [2003.10.16 인용]

2) http://www.skku.ac.kr/academics/ac_pg_general/ac_pol_17.html [2003.10.16 인용]

3) 1967~2002년까지 36년간 7개 학회지와 16개 대학 문헌정보(도서관)학과(전공) 창립 기념논문집(기념호)에 발표된 논문 총 2,271편 중 94.4%인 2,144편이 1980년 이후에 발표되었음을 보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1980년대가 13.2%(300편), 1990년대가 51.3%(1,166편), 2000~2002년이 29.9%(678편)임)(손정표,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분석: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4호(2003, 9), pp.16-17에 수록된 통계를 분석한 것임).

4) 김길자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11개교, 박사과정 4개교,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5개교가 1990년 이전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남(김길자, 우리나라 석·박사학위 논문에 나타난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 분석(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4), p.31).

5) 손정표, 천계논문, 동면에 수록된 통계를 분석한 것임.

를 밝히기 위해 영역 및 주제분야별 전체적인 흐름 파악, 연구방법의 유형별 분석, 인용 및 참고문헌 분석, 질적 측면에서의 접근 시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동향 분석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 연구의 대상인 학위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6편의 논문을 포함하여 2003년 10월 현재까지 발표된 총 25편의 논문 중 22편이 1990~2003년 사이에 발표된 것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를 보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 동향분석은 물론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한 분석들도 각 영역별 연구동향 파악을 위한 주제 세분화에서 동일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각자 독자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분류해 놓고 있어 시기적인 변동관계를 비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문헌정보학의 전 주제분야에 걸친 연구동향을 분석·제시하기 위하여 필자가 이미 학술지발표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발표한 바 있는 한 논문과 관련된 후속 논문의 일환으로 1959~2002년의 44년 동안 발표된 석·박사학위논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각 분야별 연구동향을 살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한계

1) 연구방법

이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각 분야별 연구동향 분석은 박준식 편 「한국 도서관학 관계 문헌색인, 1945~1974」⁶⁾와 박준식, 이애란 공편 「한국문헌정보학 색인, 1975~1992」⁷⁾ 국립중앙도서관 발행 「도서관계」 제7권, 제7호~제13권, 제2호(1997, 7~2003, 3)⁸⁾, 국회도서관의 「국내 석·박사학위논문 목록 DB」⁹⁾, 국립중앙도서관의 「석·박사학위논문 DB」¹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대학도서관소장 학위논문 DB」¹¹⁾에 수록된 문헌정보학분야 석·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중복 수록 여부 관계를 조사한 후, 중복되지 않은 1959~2002년의 44년 동안 발표된 박사학위논문 169편, 석사학위논문 1,526편, 계 1,695편을 석·박사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여 조사·분석하였다.

6) 朴俊植 編, 韓國圖書館學關係文獻索引, 1945~1974(大邱 : 慶北圖書館學會, 1976)
 7) 박준식, 이애란 공편, 한국문헌정보학 색인, 1975~1992(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4)
 8) 국립중앙도서관의 월간 「도서관계」는 1997년 7월부터 매년 제2호(3월호)와 제7호(7월호)에 '문헌정보학 석·박사학위논문 목록 및 초록'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9) <http://www.nanet.go.kr/dl/SimpleSearch.php> [2003.9.23 인용].
 10) http://www.nl.go.kr/search/new_search/search/list.php [2003.8.27 인용].
 11) http://catz.riss4u.net/union/search/re_t_list.jsp [2003.8.23 인용].

②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각 분야를 필요에 따라 대·소 항목으로 나누어 연도별, 영역별로 살펴보았으며, 분류기준은 DDC 20판의 주제분류를 비롯하여 각 영역별 저서의 목차, 선행연구에서 각 학자들이 사용한 분류기준 및 각 영역별 전문가의 자문 등을 참고로 필자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 한 논문에서 연구동향 분석에 적용한 바 있는 분류기준을 그대로 채택하여 8개 영역, 75개 대주제, 124개 소주제로 설정하였다.¹²⁾ 그것은 분석대상은 다르지만 연구자들의 관심분야의 변화와 흐름, 학문의 유행, 발전단계 및 미래의 예측 등을 서로 비교하는 것도 학문의 발전과 연구의 방향 설정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 연구한계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문헌정보(도서관)학과(사서교육전공 포함)에서 생산된 학위논문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타 학과에서 문헌정보학분야를 대상으로 생산한 논문도 포함하였다.

② 이 연구는 각 영역의 주제별 연구동향에 대한 거시적 측면에서의 계량적 분석만으로 그쳤으며, 연구방법의 유형별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기법 또는 적용기법별과 같은 미시적 분석은 제외하였다.

③ 외국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논문은 이 연구의 목적이 국내에서의 문헌정보학 연구의 흐름과 주제별 관심도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④ 박사학위논문과 석사학위논문간의 비교분석은 박사학위논문편수가 석사학위 논문편수보다 9배 이상이 적어 통계적의미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3. 선행연구 개관

지금까지 발표된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적 연구를 보면 1979년에 최초의 논문이 발표된 이래 총 25편이 발표되었는데, 이 중 1980년대가 2편, 1990년대가 14편, 2000년대가 8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방향을 보면 양적 연구가 22편, 인용분석 연구가 3편으로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¹³⁾ 이들의 선행연구 중 국내에서 발표된 문헌정보학분야 석·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한 6편의 양적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개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979년 나성실은 박준식 편 「한국도서관학 관계 문헌색인: 1945~1974」에 수록된 문헌정보학 관계 논문·기사 4,852편과 함께 석사학위논문 60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는데, 이 중 학위논문은 10년 단위별, 학위과정별로 분석한 후, 이를 다시 16개 주제별과 그 아

12) 손정표, 전계논문, pp.20-30에 수록된 <표4~11>참조.

13) 발표 논문수는 필자의 상계논문, p.12에서 밝힌 숫자에 이 인용논문을 포함한 것임.

래 필요에 따라 관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¹⁴⁾

1982년 한복희는 1959~1981년간에 발표된 학위논문 163편의 연구동향을 1970~1988년 간 한국문헌정보학회의 「도서관학」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의 「도서관학논집」에 게재된 논문 93편과 함께 분석하였는데, 이 중 학위논문은 대학별, 수여학위별, 연도별 분포와 분야별, 연도별 추이를 5개 영역, 30개 주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¹⁵⁾

1989년 엄영애는 1959~1988년간에 발표된 석·박사학위논문 312편의 연구동향을 1970~1988년 간 간행된 「도서관학」과 「도서관학논집」에 게재된 논문 175편과 함께 분석하였는데, 이 중 학위논문은 23개 주제로 구분한 후 10년 단위로 나누어 학회지 수록 논문과 비교·분석하였다.¹⁶⁾

1992년 김상호는 서지학분야만을 대상으로 하여 1961~1991년간에 발표된 석·박사학위논문의 연구동향을 서지학, 문헌정보학, 한국학분야 학술지와 대학논문집, 출판·인쇄·언론분야의 각종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602편과 함께 분석하였는데, 이 중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동향은 이들을 10년 단위로 구분한 후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분석하여 놓고 있다.¹⁷⁾

1993년 문경빈은 1959~1991년간에 발표된 석·박사학위논문 589편의 연구 동향을 1970~1991년간 간행된 「도서관학」, 「서지학연구」, 「정보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303편과 함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내용

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¹⁸⁾

1994년 김길자는 1959~1992년 2월까지 발표된 문헌정보학 관련 국내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논문 490편, 박사학위논문 53편, 계 543편 중 원전확인이 가능한 521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내용, 연구목적, 자료수집방법, 연구방법 등의 동향을 연대별, 주제영역별(7개 영역, 53개 주제)로 분석하였다.¹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논문은 지금까지 6편이 발표되었으나, 이 중 김길자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술지 수록 논문을 포함시켜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학술지도 전수조사에 바탕을 두고 학위논문의 동향과 비교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음에도 서지학분야를 대상으로 한 김상호 논문을 제외하고는 2~3개로 국한하여 비교대상으로 삼았고, 분류기준도 각기 다르게 적용되어 있다.

14) 羅成實, “韓國圖書館學研究的 傾向에 관한 研究(I); 1945~1974, 30年間に 發表된 論文記事의 計量的 分析,” 崇義論叢, 第4輯(1979), pp.37-83.

15) 韓福姬, “우리나라 도서관학계 연구동향의 수량적 고찰; 1959년부터 1981년까지,” 人文科學研究所論文集(忠南大學校), 제9권, 제2호(1982), pp.567-588.

16) 엄영애, “도서관학 연구문헌의 주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창립 30주년기념 학술논문집(1989), pp.211-235.

17) 김상호, “한국의 서지학 동향,” 書誌學研究, 第8輯(1992), pp.353-362.

18) 문경빈,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19) 김길자, 전계논문.

그리고 김상호의 논문도 분석대상 범위는 넓게 설정하였으나 대신 내용분석을 위한 주제 구분은 6개만 선정하여 보다 세분화된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김길자의 논문도 일반대학원 문헌정보(도서관)학과에서 발표된 학위논문만으로 국한하고 특수대학원 문헌정보학(사서교육)전공과 문헌정보학과 외의 학과에서 생산된 문헌정보학분야의 학위논문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족한 부분들을 전수조사에 가깝도록 보완하여 편차의 폭을 최소화하고, 이 연구의 조사대상 기간과 같은 기간에 생산된 학술지발표 논문의 분석 결과와의 비교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동일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논제를 채택하였다.

II. 연구동향 분석

1. 연도별 분석

단행본으로 간행된 2편의 문헌정보학 색인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계, 국회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1959년부터 2002년까지 44년간 발표된 문헌정보학분야 석·박사학위논문의 연도별 분포현황은 영역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영역별, 연도별 학위논문 현황 (단위: 편)

연도	영역	문헌정보 학 기초	도서관 경영	자료 조직	장서개발 (관리)	공공 봉사	서지학	도서 및 도서관사	정보학	계
59				1						1
60										.
61			1	1		1	1	2		6
62				2				1		3
63			2				1			3
64							1			1
65						1	1			2
66								2		2
67							1			1
68						1	1			2
69			1			1		1		3
70			3			3				6
71	1		2			1			2	6
72			2	1		2	1	1		7
73			6		2	5	7	1	2	23

74		1	1			1		2	5
75		6	2	1	4	7	1		21
76		5		1	5	11		6	28
77		6	1		5	7	3		22
78		4	2		3	2	2	4	17
79		5	1	2	1	3	1	4	17
80		2	3	1	8	9		3	26
81	1	7	4	2	3	5	3	3	28
82	1	7	3	2	3	2	2	8	28
83		12	5	1	3	5	1	10	37
84	2	9	1	5	3	3	1	11	35
85		11	2	2	6	5		8	34
86		8	5		2	2	2	7	26
87	2	11	4	2	6	2		12	39
88	1	16	1	4	3	5		10	40
89		10	6	2	8	3	2	10	41
90	1	20	2	1	5	6	2	7	44
91	1	14	5	4	8	11	1	9	53
92	1	32	11	3	9	6		18	80
93	2	28	11	6	11	8	1	22	89
94	1	26	10	5	7	4		20	73
95	2	23	12	5	15	6	1	26	90
96	2	25	7	8	15	6	4	21	88
97	1	30	8	6	16	7		20	88
98	2	23	19	9	15	12	1	27	108
99	4	33	14	3	13	10	2	26	105
00	1	26	10	14	22	9	1	33	116
01	1	37	21	9	21	4	1	26	120
02	2	37	14	5	33	7	1	32	131
계	29	491	190	105	268	182	41	389	1,695
(%)	(1.7)	(29.0)	(11.2)	(6.2)	(15.8)	(10.7)	(2.4)	(23.0)	(100.0)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4년간 발표된 총논문수는 1,695편으로, 연평균 38.5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발표량의 연도별 순위를 보면 2002년이 131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001년의 120편, 2000년의 116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자가 조사하여 한 논문에서 밝힌 바 있는 학술지 수록 논문의 분포상태²⁰⁾와 마찬가지로 1996년까지 거의 역 연도순으로 1~6위(1996년과 1997년은 순위가 같음)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7년 동안 급속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다시 5년 단위로 묶어 살펴보면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5~1999년이 전체의 28.3%로서 연평균 95.8편, 2000~2002년이 21.6%로서 연평균 122.3편이 발표된 것으

20) 손정표, 전계논문, p.17.

로 나타나, 최근 8년간 발표된 논문수가 44년 동안 발표된 전체 논문수의 50%로 과반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문헌정보학분야 석·박사학위과정의 발아기(發芽期)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²¹⁾ 그 이전의 단위를 1로 하여 그 비를 산출해 볼 때 1 : 2.2 : 4.9 : 7.2 : 8.4 : 15.8 : 22.3 : 28.4로서, 5년 단위별 평균 증가비가 1.7로 나타나 6년마다 거의 배증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헌정보학분야 학위과정이 1970년 이전에는 2개교에 불과했던 것이 1970년대에 6개교, 1980년대에 12개교에 신설되었고²²⁾, 1990년 이후에는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려 29개교에 신설되어 학위수여자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급증현상을 보여준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표 2> 영역별, 5년 단위별 학위논문 현황 (단위 : 편)

연도	59~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2	계(%)
문헌정보학 기 초			1		4	3	6	11	4	29(1.7)
도서관경영 자료조직	3	1	14	26	37	56	120	134	100	491(29.0)
장서개발 (관 리)			2	4	11	10	19	31	28	105(6.2)
공공봉사 서지학	1	3	11	18	20	25	40	74	76	268(15.8)
도서 및 도서관사	3	3	2	7	7	4	4	8	3	41(2.4)
정보학			6	14	35	47	76	120	91	389(23.0)
계(%)	14 (0.8)	10 (0.6)	47 (2.8)	105 (6.2)	154 (9.1)	180 (10.6)	339 (20.0)	479 (28.3)	367 (21.6)	1,695 (100.0)
연평균(편)	2.3	2.0	9.4	21.0	30.8	36.0	67.8	95.8	122.3	38.5

다음으로 영역별 학위논문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도서관경영 영역이 가장 많고 (29.0%), 그 다음으로 정보학(23.0%), 공공봉사(15.8%), 자료조직(11.2%), 서지학(10.7%), 장서개발(관리)(6.2%), 도서 및 도서관사(2.4%), 문헌정보학기초(1.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필자가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 수록 논문을 분석하여 발표한 논문에서 보여주었던 1위 정보학, 2위 서지학, 3위 도서관경영, 4위 자료조직, 5위 공공봉사, 6위 문헌정보학기초, 7위 도서 및 도서관사, 8위 장서개발(관리)의 순²³⁾과

21) 1970년대를 발아기로 설정한 것은 연세대학교가 1957년에, 이화여자대학교가 1961년에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과정을 설치하였지만, 이 중 연세대학교는 1965년까지만 배출하고 9년간 공백을 두었다가 1975년부터 다시 배출하기 시작한데다가(韓福姬, 전계논문, p.580), 1971년에 설치된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을 비롯하여 5개교가 1970년대에 석·박사학위과정을 개설하였기 때문이다(김길자, 전계논문, p.31)

22) 김길자, 전계논문, p.31.

23) 손정표, 전계논문, p.17.

는 상당히 다른 양태를 띄고 있다.

이를 다시 5년 단위로 묶어 살펴보면 <표 2>의 분석 결과 도서 및 도서관사(36.6%)와 서지학(52.7%)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이 총 발표논문수의 70% 이상을 1990~2002년의 13년 동안에 발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각 연도 단위별/영역별로는 1995~1999년間に 발표한 도서관경영 영역(134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990~1994년의 도서관경영 영역(120편)과 1995~1999년의 정보학 영역(120편), 2000~2002년의 도서관경영 영역(100편), 같은 기간의 정보학 영역(91편)의 순으로, 5위까지 도서관경영과 정보학의 2개 영역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역별 분석

1959~2002년의 44년간 발표된 문헌정보학분야 석·박사 학위논문의 각 영역별 현황을 5년 단위로 묶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헌정보학 기초 영역

문헌정보학기초 영역 학위논문의 주제별 연구동향을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문헌정보학기초 영역 5년 단위별 학위논문 현황 (단위: 편)

항목		연도									계(%)
		59~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2	
문헌 정보학 이론	일반										
	기록관리학										
	역사·사정					1			1		2
	연구동향							1	2		3
	계					1		1	3		5(17.2)
문헌 정보학 교육	일반					1	1	1		1	4
	교육과정			1		2	1	1	5	1	11
	교수방법								2		2
	교육환경								1		1
	비교연구										
계			1		3	2	2	8	2	18(62.1)	
문헌 정보학 연구 방법론	일반							1			1
	논문 작성법										
	계							1			1(3.4)
정보와 사회								2		1	3(10.4)
도서관 단체							1			1	2(6.9)
총 계(%)			1(3.4)		4(13.8)	3(10.4)	6(20.7)	11(37.9)	4(13.8)	29(100.0)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44년간 발표된 총 학위논문수는 29편으로, 연평균 0.7편을 발표하여 낮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 영역에 속하는 주제의 성격들이 대체로 과학적 연구에 바탕을 두거나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이론적 모형개발에 주안점을 두는 학위논문의 성격과는 다소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사료된다. 이를 5년 단위별로 살펴보면, 1995~1999년의 5년간 발표율이 전체의 37.9%, 연평균 2.2편으로 가장 많은 발표량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이 2000~2002년의 3년간 발표율이 13.8%(연평균 1.3편), 1990~1994년의 20.7%(연평균 1.2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 기간 동안의 발표율을 보면 전체의 72.4%를 차지하고 있어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연구가 다소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주제별로 살펴보면, 문헌정보학교육이 전체의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3.4%)과 도서관 단체(6.9%)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 주제분야에서는 문헌정보학 교육분야 중 교육과정의 기초영역 전체의 37.9%(11편)를 차지하리만큼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1995~1999년에 많은 관심(5편)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필자가 한 논문에서 밝힌 학술지 수록 논문의 현황²⁴⁾과는 달리 44년 동안 학위논문이 전혀 발표되지 않은 소주제분야로는 문헌정보학 이론 일반, 기록관리학, 문헌정보학교육의 비교연구, 논문작성법분야를 들 수 있다.

2) 도서관경영 영역

도서관경영 영역 학위논문의 주제별 연구동향을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도서관경영 영역 5년 단위별 학위논문 현황 (단위: 편)

항 목		연 도									계
		59~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2	
도서관 행정	일반·관종별			2	1				1		4
	지적자유·권리선언							1	1		2
	계			2	1			1	2		6(1.2)
도서관 관련 법규· 기준	납본제도										
	저작권						1	1	4	3	9
	관련법규·규정					1				1	2
	도서관기준							3	4		7
	계					1	1	4	8	4	18(3.7)
도 서관 경영론	일반·관종별	1		2	8	6	7	21	20	13	78
	품질관리(TQM)										
	기록관경영									3	3
	아웃소싱										
	계	1		2	8	6	7	21	20	16	80(6)

24) 상계논문, p.20.

정책 및 전략론			1		2		4	3	3	13(2.7)
계획론			1		1	2	7		2	13(2.7)
조직론				1	2	2	9	10	6	30(6.1)
인사 관리	일반·관종별					1	1	1	1	4
	사서직·전문성		1	2	1		3	1		8
	인사고과							1		1
	교육훈련					1	3	9	1	14
	정원관리									
	직무내용 및 분석		1	2	1					4
	계		2	4	2	2	7	12	2	31(6.3)
의사결정							1			1(0.2)
의사전달						2		2		4(0.8)
인간 관계	일반						1			1
	갈등						1	3	1	5
	동기유발							2		2
	사기·직무 태도·직무만족		1	2	4	3	8	11	4	33
	직무스트레스							1	1	2
	참가경영				1					1
	계		1	2	5	3	10	17	6	44(9.0)
지도성					1			1		2(0.4)
작업관리							1			1(0.2)
예산 관리	일반						3	1		4
	예산배분·제도		1				2		1	4
	원가계산			1						1
	계		1	1			5	1	1	9(1.8)
열람 관리	일반			1	1	1		1		4
	대출		1	1	1	3	4			10
	계		1	2	2	4	4	1		14(2.8)
장서 (서고) 관리	일반			1					1	2
	장서점검									
	자료보존						1	2	2	5
	계			1			1	2	3	7(1.4)
마케팅							1	2	12	15(3.1)
상호 협력 도서 관망	일반		1	1	1	3	6	5	4	21
	상호대차			1		1	2	2	3	9
	목록작성						1	1		2
	참고·정보봉사						1			1
	서지·서지데이터베 이스									
	장서개발				1	1			2	4
	문헌(원문)제공서비스						1	1	2	4
	정보유통					3	1	6	1	11
계		1	2	2	8	12	15	12	52(10.6)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4호)

자료별 (부서별) 관리	지정도서				1				1	2	
	연속간행물					2		1	1	5	
	참고자료					1	2			3	
	학부도서					1				1	
	시청각자료	1						1	1	3	
	디지털자료							2		3	
	문서·기록물						2		3	5	
	학위논문						1			1	
	정부간행물						1	2	1		
	고서·계보							1			
	아동자료							1	1	1	
	향토자료								1		
	주제별자료							1		2	
계	1			1	4	6	9	8	9	38(7.7)	
건축 및 설비	건축계획			3	1	8	10	5	16	9	52
	환경심리						3	1			4
	실내디자인						3	1	2	1	7
	서가배치						1				1
	설비					1					1
	비품										
계			3	1	9	17	7	18	10	65(13.2)	
도서관 측정·평가							1	5	9	7	22(4.5)
도서관 실태	도서관				2	2	1	10	3	1	19
	기록(문서)관										
	계				2	2	1	10	3	1	19(3.9)
지식경영(관리)										6	6(1.2)
총 계 (%)		2 (0.4)	1 (0.2)	14 (2.9)	26 (5.3)	39 (7.9)	56 (11.4)	119 (24.2)	134 (27.3)	100 (20.4)	491 (100)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44년간 발표된 총 학위논문수는 491편으로, 연평균 11.2편을 발표하여 정보학 영역과 함께 관심도가 가장 높은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5년 단위별로 살펴보면, 2000~2002년의 3년간 발표율이 전체의 20.4%, 연평균 33.3편으로 가장 많은 발표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이 1995~1999년의 27.3%(연평균 26.8편), 1990~1994년의 24.2%(연평균 23.8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995~2002년의 8년간에 걸친 발표율을 보면 전체의 47.7%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도 이기간 동안에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주제별로 살펴보면, 총 22개 분야 중 도서관경영론 전반(16.5%), 도서관건축 및 설비(13.2%), 도서관 상호협력(망)(10.6%) 등 3개 분야가 10%이상, 인간관계(9.0%)등 4개 분야가 6~9%, 도서관측정 및 평가(4.5%) 등 7개 분야가 2~5%로 나타나 대체로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한 두드러진 편중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의사전달, 지도성

(leadership), 의사결정, 작업관리의 4개 대주제분야는 관심을 가질만한 연구대상 분야임에도 44년 동안 1.0%(4.9편) 미만의 저조한 발표율을 보여주어 관심도가 아주 낮은 연구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 대주제분야 중 특기할만한 소주제분야를 들면 도서관경영론 전반의 경우 도서관 개념을 포함한 일반·관종별(78편)이, 인사관리분야의 교육훈련(14편)이, 인간관계분야의 사기·직무태도·직무만족 등(33편)이, 상호협력(망)분야의 경우 협력(망) 일반(21편)이, 건축 및 설비분야의 경우 건축·공간계획(52편)이 다른 소주제분야에 비해 높은 발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부터 관심도가 높아진 소주제분야를 들어보면 저작권, 교육훈련, 갈등, 자료보존, 정보유통, 도서관측정 및 평가를 들 수 있고, 2000년대에 들어서 관심분야로 등장한 주제분야는 서비스품질평가, 고객만족도, 고객관리 등의 마케팅분야, 기록관경영, 지식경영(관리) 등을 들 수 있으며, 지금까지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분야로는 납본제도, 품질관리(TQM), 아웃소싱, 정원관리, 장서점검, 서지·서지데이터베이스의 상호협력(망), 비품, 기록관 경영실태를 들 수 있다.

3) 자료조직 영역

자료조직 영역 학위논문의 주제별 연구동향을 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44년간 발표된 총 학위논문수는 190편으로, 연평균 4.3편을 발표하여 8개 영역중 중간 정도의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5년 단위별로 살펴보면, 2000~2002년의 3년간 발표율이 전체의 23.2%, 연평균 14.7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995~1999년의 31.6%(연평균 12편), 1990~1994년의 21.0%(연평균 8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995~2002년의 8년간에 걸친 발표율을 보면 전체의 54.8%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도 이 기간 동안에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주제별로 살펴보면, 분류법분야가 전체의 42.6%로 가장 높고, 다음이 목록법 분야(36.8%)로서, 이 두 분야에서 생산된 학위논문이 전체의 79.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색인작성법(2.6%)과 초록작성법(1.1%)은 생성 역사에 비해 낮은 관심도를 보이는 연구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 주제분야에서는 분류법분야의 경우 분류규정·체계(51편)가, 목록법의 경우 서지기술형식을 포함한 목록규칙·체계(29편)가 다른 소주제에 비해 높은 발표율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1990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지금까지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분야라고 하겠다.

이 밖에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부터 관심도가 높아진 소주제분야를 들어보면 비교분류법, 시소러스, 메타데이터 등을 들 수 있으며, 필자가 밝힌 바 있는 학술지 수록 논문의 경우²⁵⁾와 달리 학위논문이 전혀 또는 거의 발표되지 않은 소주제분야로는 키워드와 도서기호를 들 수 있다.

25) 상계논문, p.24.

<표 5> 자료조직 영역 5년 단위별 학위논문 현황

(단위: 편)

항목		연도	59~	65~	70~	75~	80~	85~	90~	95~	00~	계(%)
		64	69	74	79	84	89	94	99	02		
자료조직일반								1		1	1	3(1.6)
분류법 (지식 구조)	일반				1				6	3	4	14
	역사					1			2			3
	분류규정·체계			1	1	6	4	13	15	11		51
	비교분류	1			2	2				6	1	12
	도서기호								1			1
	계	1		1	4	9	4	22	24	16		81(42.6)
목록법	일반							1	2	2	2	7
	역사			1					1	1	1	4
	목록규칙·체계	1			1	5	4	4	4	8	6	29
	MARC							3		3	3	9
	온라인열람목록								3	4		7
	목록이용행태					1	1	5			2	9
	접근점							1	1	2	1	5
계	1		1	1	6	10	16	16	20	15	70(36.8)	
주제분석	일반							3		1	1	5
	주제명표목	2								1		3
	시소러스								2	8		10
	키워드											
	계	2						3	2	10	1	18(9.5)
색인작성법						2				2	1	5(2.6)
초록작성법										1	1	2(1.1)
메타데이터										2	9	11(5.8)
총 계 (%)		4 (2.1)		2 (1.1)	5 (2.6)	17 (8.9)	18 (9.5)	40 (21.0)	60 (31.6)	44 (23.2)		190 (100.0)

4) 장서개발(관리) 영역

장서개발(관리)영역 학위논문의 주제별 연구동향을 보면 <표 6>과 같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44년간 발표된 총 학위논문수는 105편으로, 연평균 2.4편을 발표하여 8개 영역 중 비교적 관심도가 낮은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5년 단위별로 살펴보면 2000~2002년의 3년간 발표율이 전체의 26.7%, 연평균 9.3편으로 가장 많은 발표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이 1995~1999년의 5년간으로 전체의 28.6%(연평균 6.0편)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두기간의 발표율이 전체의 55.3%를 차지하고 있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높아지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6> 장서개발(관리)영역 5년 단위별 학위논문 현황 (단위: 편)

항목		연도									계(%)
		59~64	1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2	
장서개발 (관리)일반	일반·이론							6	13	13	32
	콘텐츠관리									1	1
	계							6	13	14	33(31.4)
정책·방침				1	1	2	4	8	4	2	22(21.0)
장서개발 기준	장서구성			1		1		1	1		4
	폐기				1					3	4
	계			1	1	1		1	1	3	8(7.6)
장서평가					1	6	4	2	8	5	26(24.8)
수서업무	일반					3	2	1	4	2	12
	공급·배포처							1		2	3
	계					3	2	2	4	4	15(14.3)
교환					1						1(0.9)
총 계 (%)				2 (1.9)	4 (3.8)	12 (11.4)	10 (9.5)	19 (18.1)	30 (28.6)	28 (26.7)	105 (100.0)

이를 다시 주제별로 살펴보면 장서개발(관리) 일반이 31.4%로 가장 높고, 다음이 장서평가(24.8%), 장서개발(관리)정책·방침(21.0%)으로, 이 세 분야에서 생산된 학위논문이 전체의 77.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료교환(0.9%)은 관심도가 극히 낮은 연구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소주제분야를 들면 장서개발(관리)일반 및 이론과 장서평가를 들 수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 관심분야로 등장한 주제분야로는 폐기기준, 자료공급·배포시스템, 장서개발 범위가 웹 자료에까지 확장되어 감에 따라 생겨난 콘텐츠관리분야를 들 수 있다.

5) 공공봉사 영역

공공봉사 영역 학위논문의 주제별 연구동향을 보면 <표 7>과 같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44년간 발표된 총 학위논문수는 268편으로, 연평균 6.1편을 발표하여 8개 영역중 세번째로 관심도가 높은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5년 단위별로 살펴보면, 2000~2002년의 3년간 발표율이 전체의 28.7%, 연평균 25.7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995~1999년의 27.6%(연평균 14.8편), 1990~1994년의 15.3%(연평균 8.2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995~2002년의 8년간에 걸친 발표율을 보면 전체의 56.3%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도 이 기간 동안에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주제별로 살펴보면, 참고·정보봉사분야가 전체의 36.2%로 가장 높고, 다음이 독서교육(지도)(17.9%), 도서관프로그램을 포함한 일반봉사(12.3%)로서, 이 세분야에서

〈표 7〉 공공봉사 영역 5년 단위별 학위논문 현황

(단위 : 편)

항목	연도	59-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2	계(%)
	공공봉사일반										
참고· 정보 봉사	일반					1	2	7	10	2	22
	전자정보 서비스						1	4	14	19	38
	참고사서			1	2	1	1			1	6
	조직·제도				1	1				1	3
	상담·커뮤니 케이션				1	1	1	2	3		8
	평가						3	2	5	10	20
	계			1	4	4	8	15	32	33	97(36.2)
일반봉사	일반		1		1	4			1		7
	연장봉사						1		1		2
	도서관 프로그램						2	7	9	6	24
	계		1		1	4	3	7	11	6	33(12.3)
특수봉사	일반										
	장애인				1			1	3		5
	노인								1	1	2
계				1			1	4	1	7(2.6)	
지역개방											
대중중관계 (전자게시판 등 포함)											
독서교육 (지도)	일반								3	3	6
	독서심리 (능력·흥미)			5	1	3	1				12
	독서요법(치료)						1		1	7	9
	독서자료				1				1	1	3
	지도방법	1		3	1	2				2	9
	독서실태			1	7	1			2		11
계	1		9	10	6	2		7	13	48(17.9)	
도서관 및 정보이용교육											
도서관 및 자료이용실태											
자료이용평가											
정보공개·보호·보안											
총 계 (%)		1 (0.4)	1 (0.4)	11 (4.1)	17 (6.4)	21 (7.8)	25 (9.3)	41 (15.3)	74 (27.6)	77 (28.7)	268 (100.0)

생상된 학위논문이 전체의 66.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료이용평가와 지역개방(각 0.7%), 정보공개·보호·보안(1.1%)의 3개 대주제분야는 관심도가 극히 낮은 연구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 대주제분야 중 특기할만한 소주제분야를 들면 참고·정보봉사 분야의 경우 전자정보서비스(38편)와 참고·정보봉사 일반(22편) 및 참고·정보봉사평가(20편)가, 일반봉사분야의 경우 도서관프로그램(24편)이, 독서교육(지도)분야의 경우 독서심리(12편)와 독서실태(11편)가 다른 소주제에 비해 높은 발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관심도가 높아진 소주제분야를 보면 전자정보서비스, 참고·정보봉사평가, 도서관프로그램, 도서관 및 정보이용교육, 도서관 및 자료이용 실태를 들 수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 관심분야로 등장한 주제분야는 지역개발, 대공중관계, 독서요법(치료)을 들 수 있다.

6) 서지학 영역

서지학 영역 학위논문의 주제별 연구동향을 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서지학 영역 5년 단위별 학위논문 현황 (단위: 편)

연도 항목		59~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2	계(%)
		서지학 일반·이론								2	1
체계 서지학	서지연구			2	2	8	4	8	11	4	39
	주제문헌연구			2	4	5	1	5	7	3	27
	계			4	6	13	5	13	18	7	66(36.3)
분석 서지학	형태서지학			1	3	9	5	13	12	8	51
	원문서지학					3	2	5	5	2	17
	역사서지학				2	1		2	4	2	11
	계			1	5	13	7	20	21	12	19(43.4)
서지	목록·해제·종합 색인·초록	3	3	1	15						22
	서지 데이터베이스										
	주제별 서지			3	4	3					10
	계	3	3	4	19	3					32(17.6)
총 계 (%)		3 (1.7)	3 (1.7)	9 (4.9)	30 (16.5)	29 (15.9)	12 (6.6)	35 (19.2)	40 (22.0)	21 (11.5)	182 (100.0)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44년간 발표된 총 학위논문수는 182편으로, 연평균 4.1편을 발표하여 자료조직 영역과 함께 중간 정도의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95-1999년의 5년간 발표율이 전체의 22.0%, 연평균 8.0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990-1994년의 19.2%(연평균 7.0편)와 2000-2003년의 11.5%(연평균 7.0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에 대한 관심도도 다른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는 달리 어느 특정한 한 두 구간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대체로 전 구간에 걸쳐 완만한 상하 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다시 주제별로 살펴보면, 분석서지학분야가 전체의 43.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체계서지학분야(36.3%)로서, 이 두 분야에서 생산된 학위논문이 전체의 7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지학 일반 및 이론분야는 발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대주제 분야 중 특기할만한 소주제분야를 들면 체계서지학분야는 서지연구(39편)가 주제문헌연구(27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분석서지학분야는 형태서지학분야(51편)가 다른 소주제에 비해 현격히 높은 발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관심이 점점되고 있는 소주제분야를 보면 분석서지학 분야의 원문서지학과 역사서지학을 들 수 있으며, 반면에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소주제 분야로는 서지분야의 목록·해제·종합색인·초록과 주제별 서지를 들 수 있고, 학술지 수록 논문²⁶⁾과는 달리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소주제분야로는 서지데이터베이스를 들 수 있다.

7) 도서 및 도서관사 영역

도서 및 도서관사 영역 학위논문의 주제별 연구동향을 보면 <표 9> 와 같다.

<표 9> 도서 및 도서관사 영역 5년 단위별 학위논문 현황 (단위: 편)

항목 \ 연도	59~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2	계(%)	
도서 및 출판사(史)	1	2	1	1	2	1	1	1	1	11(26.8)	
전기					1			2		3(7.3)	
도서관사	한국 (북한포함)	2	1	1	6	3	2	2	4	2	23
	동양							1		1	
	서양					1	1	1		3	
	계	2	1	1	6	4	3	3	5	2	27(65.9)
총 계 (%)	3 (7.3)	3 (7.3)	2 (4.9)	7 (17.1)	7 (17.1)	4 (9.8)	4 (9.8)	8 (19.4)	3 (7.3)	41 (100.0)	

<표 9> 에 제시된 바와 같이 44년간 발표된 총 학위논문수는 41편으로, 연평균 0.9편을 발표하여 문헌정보학기초 영역과 함께 낮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5년 단위별로 살펴보면, 1995~1999년의 5년간 발표율이 전체의 19.4%, 연평균 20.편으로 가장 많고,

26) 상계논문, p.27.

그 다음이 1975~1979년과 1980~1984년의 17.1%(연평균 각 1.4편)로 상승한 서지학 영역과 유사한 양상을 띄고 있으며, 연구에 대한 관심도도 비록 낮기는 하지만 대체로 어느 특정한 기간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역시 서지학 영역의 현상처럼 전 구간에 걸쳐 완만한 상승 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다시 주제별로 살펴보면, 도서관사가 전체의 65.9%(27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한국도서관사분야(23편)에 관심이 편중되어 있고, 전기와 동·서양도서관사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동양도서관사의 경우는 1편 뿐으로 극히 낮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8) 정보학 영역

정보학 영역 학위논문의 주제별 연구동향을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정보학 영역 5년 단위별 학위논문 현황 (단위: 편)

항목		연도									계(%)
		59~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2	
정보(학) 이론	일반										
	정보커뮤니케이션					2	1	1	1		5(1.3)
	정보경제학										
	계					2	1	1	1		5
정보검색	일반							5	10	3	18
	역사										
	시스템				2	7	3	5	16	17	51
	표준화								5	2	7
	비교·평가						4	8	17	16	45
계				2	7	7	18	48	38	120(30.8)	
자동분류						2		1	1	3	7(1.8)
자동색인	일반·시스템						3	5	5	2	15
	색인언어				1	1		1	1		4
	계				1	1	3	6	6	2	19(4.9)
자동초록·요약								1		2	3(0.8)
자동시소러스				2		2	1	1	2	1	9(2.3)
도서관 자동화	일반(전체)				5	3	2	8	2	1	21
	수서·정리				1	2	5	6	1	2	17
	연속간행물			2		1					3
	대출				1	3	6	2			12
	계			2	7	9	13	16	3	3	53(13.6)

정보 (관리) 시스템	일반			1		1	2	3	6	6	19
	전문가 시스템						2	7	1		10
	지식관리 시스템								1	4	5
	계			1		1	4	10	8	10	34(8.7)
계량서지학						2	3	2	1	1	9(2.3)
인용분석				1	2	4	1	3	3	5	19(4.9)
정보기술									2		2(0.5)
이용자인터페이스								1	4	2	7(1.8)
정보처리											
정보이용(요구)형태					2	6	7	11	22	10	58(14.9)
도서관 네트워크	일반							1	2		3
	CD-ROM 네트워크								2		2
	계							1	4		5(1.3)
데이터 베이스	일반							2	2	2	6
	시스템					4	3	1	4	1	13
	콘텐츠개발								2	4	6
	평가								2	2	4
	계					4	3	3	10	9	29(7.5)
디지털도서관									3	3	6(1.5)
참고질의 시스템								1			1(0.3)
정보정책									1	2	3(0.8)
통 계(%)				6 (1.6)	14 (3.6)	40 (10.3)	43 (11.1)	76 (19.5)	119 (30.6)	91 (23.3)	389 (100.0)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44년간 발표된 총 학위논문수는 389편으로, 연평균 8.8편을 발표하여 국내에서의 학문 생성의 역사가 일천합²⁷⁾에도 8개 영역 중 두번째로 관심도가 높은 연구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5년 단위별로 살펴보면, 2000~2002년의 3년간 발표율이 전체의 23.3%, 연평균 30.3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이 1995~1999년의 30.6%(연평균 23.8편), 1990~1994년의 19.5%(연평균 15.2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995~2002년의 8년간에 걸친 발표율을 보면 전체의 53.9%로서 자료조직 영역 및 공공봉사 영역과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어 연구도 이 기간 동안에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주제별로 살펴보면, 정보검색분야가 전체의 30.8%로 가장 높고, 다음 이용자연구를 포함한 정보이용(요구)형태(14.9%), 도서관자동화(13.6%)로서, 이 세분야에서 생산된 학위논문이 전체의 59.3%를 차지하여 다른 대주제분야에 비해 비교적 높은 관심도를 나타낸 반면, 자동초록·요약과 정보정책(각 0.8%), 정보기술(0.5%), 참고질의시스템(0.3%)의 4개 대

27) 박준식의 색인에 의하면 '정보학'의 개념에 대한 글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1~1973년으로 나타나고 있다(朴俊植 編, 前掲書, pp.225-226 참조).

주제분야는 1% 미만으로 관심도가 극히 낮은 연구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 대주제 분야 중 특기할만한 소주제분야를 들면 정보검색분야의 경우 정보검색시스템(51편)과 비교·평가(45편)가, 자동색인분야의 경우는 일반 및 시스템(15편)이, 도서관자동화분야의 경우는 일반(21편)과 수서·정리(17편)가, 정보(관리)시스템분야의 경우는 일반(19편)이, 데이터베이스분야의 경우는 시스템(13편)이 다른 소주제분야에 비해 높은 발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발표량은 적지만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새로이 관심분야로 등장한 소주제분야를 들면 표준화, 자동초록·요약, 지식관리시스템, 이용자 인터페이스, 콘텐츠개발, 데이터베이스 평가, 디지털도서관, 정보정책을 들 수 있고, 관심도가 급속히 높아진 주제로는 정보검색 시스템과 비교·평가, 이용자연구를 포함한 정보이용(요구)행태, 정보(관리)시스템 일반, 인용분석을 들 수 있다. 반면에 학술지에는 발표되어 있지만²⁸⁾ 학위논문으로는 44년 동안 전혀 또는 거의 발표되지 않은 소주제분야를 들면 정보(학)이론, 정보경제학, 정보검색사(史), 정보처리, 참고질의 시스템을 들 수 있으며, 1990년 이후부터 연구가 중단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소주제로는 연속간행물업무와 대출업무 자동화를 들 수 있다.

Ⅲ.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1959~2002년까지 44년간 발표된 문헌정보학분야의 석·박사학위논문 1,695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1957년 연세대학교에 학부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으로 도서관학과(현 문헌정보학과)가 설립되면서 현대적 의미의 문헌정보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46년의 세월이,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도서관학과(현 문헌정보학과)가 설립되면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의 변화와 발전에 또 하나의 축이 이루어진지 2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정작 연구활동이 활성화되고 그 여파의 일환으로 학위논문의 발표량이 점증되기 시작한 시기를 보면 1980년대에 들어서서 변화의 조짐이 일기 시작하여 이후 학위논문의 발표량도 6년마다 배증현상을 초래하는 등 급속한 증가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활동의 변화는 곧 학문영역에 대한 관심도와 변화추이를 밝히기 위한 연구동향 연구에도 영향을 미쳐 지금까지 총 2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 중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한 논문만도 6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를 보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한 동향분석은 물론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한 분석들도 각 영역별 연구동향 파악을 위한 주제 세분화에서 동일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시기적 변동관계를 비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학위논문만을 대상으로

28) 손정표, 전계논문, pp.29-30.

한 한편의 논문도 일반대학원 만을 대상으로 부분조사를 하여 역시 각 영역 전체의 동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위논문의 전 주제분야의 연구동향을 계량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분석적 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1959~2002년까지 발표된 학위논문의 연평균 발표량은 38.5편으로 나타났고, 연도별 발표량은 2002년이 131편으로 가장 많고, 그 순위는 필자가 한 논문에서 밝힌 학술지 수록 논문의 분포상태와 마찬가지로 1996년까지 거의 역 연도순으로 나타나 최근 7년동안의 연구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역별 학위논문 발표 현황은 도서관경영, 정보학, 공공봉사, 자료조직, 서지학, 장서개발(관리), 도서 및 도서관사, 문헌정보학기초 영역 순으로 나타나, 필자가 한 논문에서 밝힌 학술지 수록 논문의 영역별 순위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3. 영역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문헌정보학기초 영역: 발표량은 연평균 0.7편, 주제별로는 문헌정보학교육분야가 전체의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② 도서관경영 영역: 발표량은 연평균 11.2편으로 8개 영역 중 가장 많고, 주제별로는 도서관경영론 전반, 도서관건축 및 설비, 도서관 상호협력(망) 등 3개 분야가 10~17%로 다른 소주제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며, 학위논문이 전혀 발표되지 않은 주제는 납본제도, 품질관리, 아웃소싱, 정원관리, 장서점검, 비품, 기록관 경영실태 등 7개 분야로 나타남.

③ 자료조직 영역: 발표량은 연평균 4.3편, 주제별로는 분류법분야가 전체의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학위논문이 전혀 또는 거의 발표되지 않는 주제는 키워드와 도서기호분야로 나타남.

④ 장서개발(관리) 영역: 발표량은 연평균 2.4편, 주제별로는 장서개발(관리) 일반이 전체의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⑤ 공공봉사 영역: 발표량은 연평균 6.1편, 주제별로는 참고·정보봉사분야가 전체의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⑥ 서지학 영역: 발표량은 연평균 4.1편, 주제별로는 분석서지학분야가 전체의 43.4%로 가장 높고, 학위논문이 전혀 발표되지 않은 주제로는 서지데이터베이스분야로 나타남.

⑦ 도서 및 도서관사 영역: 발표량은 연평균 0.9편, 주제별로는 도서관사분야가 전체의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⑧ 정보학 영역: 발표량은 연평균 8.8편, 주제별로는 정보검색분야가 전체의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학위논문이 전혀 또는 거의 발표되지 않은 주제는 정보(학)이론, 정보경제학, 정보검색사(史), 정보처리, 참고질의 시스템 등 5개 분야로 나타남.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